

23. 새 삶을 찾은 여인

신앙고백

찬 송 :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가 363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누가복음 7장 36~50절

말씀묵상

희망 없이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죄를 속명처럼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인의 내면에도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별 기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에 일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용기를 내야 합니다(36~37).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인은 다른 이들처럼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싶었지만, 그분 앞에 나가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삶은 죽음보다 나은 게 없었기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2.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38).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옥합을 들은 한 여인이 앉아 계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저온 옥합의 뚜껑을 열어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발을 씻어 주고 입 맞추 인사하며 머리에 감람유를 떨어뜨리는 것은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일을 생략했지만,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한 듯 그 일을 정성껏 행했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 말고, 할 수 있는 일만 잘 실행해도 세상은 변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3.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47~50).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은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불러 사랑이 많은 곳에 죄 사함도 크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비로소 여인을 움아했던 죄의 굴레가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었습니다. 여인은 자유인이 되어 그곳을 떠났습니다.

맺는말.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두고서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놔두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적용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은 국내미자립교회(말씀위예세운교회)를 후원합니다.

2. 성경통독강해

성경통독강해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통독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통독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

성경통독이 6월 말에 끝납니다.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는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4. 제직회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5. 아버지주일 선물

지난 아버지주일에 65세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7.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헌물 - 김주용성도(정정희집사 장남)께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 찬 송 9장 다 갈 이

2·3부

예배의부름 인 도 자
※ 임 재 찬 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 갈 이

※ 교 독 문 28.시편 63편 다 갈 이
참 회 기 도 다 갈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251장 다 갈 이

1부: 박명원 권사

기 도 2부: 안순조 안수집사
3부: 방지원 청년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14장 28-29절(신약 24) 인 도 자
..... 사도행전 16장 25-26절(신약 216)

찬 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영 상

말 씀 주만바라볼지라(36) 정승훈 목사
..... 물위를 걷는 믿음

6 월 봉사위원

	6월 6일	6월 13일	6월 20일	6월 27일
예배기도	1부 박명원	나차금	한춘자	하연주
	2부 안순조	정순진	이미숙	서소영
	3부 방지원	임수정	박승민	이상현
헌금위원	1부 : 김향순 2부 : 정장환 박정아			
안내위원				

결 단 찬 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갈 이
헌 금 기 도 인 도 자
교 회 소 식 인 도 자
※ 송 영 주께서 주신 동산에 다 갈 이
※ 축 도 임창세 목사
성령이 임하시면①
□ 3부 설 교 천광우 목사
두 가지 약속(행 1:1-11)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예배를 잠정 중단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29절】

²⁸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²⁹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도

【사도행전 16장 25-26절】

²⁵한 방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²⁶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 예 배 안 내 >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00	본 당
	2부	오전 11:00	본 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 육 부 서	유 치 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 당

<2021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광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재단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 성경일독 45주차 안내 (69명)

강복순 박삼화 김금란 김남일 김명숙 김영옥 김영주 김예진 김예찬
김용수 김정예 김향순 김현섭 김효영 나차금 남영옥 남효정 박기자
박심원 박영애 박옥년 박정아 박춘남 서소영 석장환 신연호 신영숙
안상분 안순조 양웅모 우순희 우희연 유인숙 유헌순 윤종찬 이경미
이만순 이미숙 이복덕 이복음 이상설 이용준 이인임 이해영 이해정
이 희 임근실 임신자 임완민 임한옥 장영미 전명숙 전옥자 정광옥
정영숙 정장환 정재하 정정희 주리에 주종찬 최광순 최미연 최영란
최운교 최진수 하연주 한규봉 홍지현 황영옥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삼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임창세·주리에 박형순 김정예 김효영·정순진 김 훈 나차금 박해영·신미정
신새벽 유인숙 윤종찬·윤주영 이만순 이상설·박옥련 이용배 이용준
임완민·박삼화 임완순 장명자 장신자 정영숙 정재현 정진영 조병운·박영애
주경숙 주종찬 천광우 최진수·최영란 하연주 한규봉

◆ 감사헌금

임창세·주리에 김수매 김영선 남영옥 명민주 박상민·김영옥 박원우 박재락
박정아 박희균·이혜영 백승환·최미연 손미자 안홍옥 이경임 이말자 이순자
이용준·김향순 이인임 이정택 이정훈 이지연 임근실 정귀자 정영숙
조병운·박영애 천광우 홍은정 무명5

◆ 선교헌금

박삼화 이정택·이지연

◆ 목장헌금

추사순

◆ 건축헌금

강인식 김용수 박상민 이만순 이용배 임완민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기관헌금	목장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428,000	5,545,000	1,405,000		30,000	1,500,000	8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